

2024학년도 수능 대비 음운 변동 문제

1. 다음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로 적절한 것은? (고1 2015년도 9월 12번)

음운



- ① 받침이 뒤의 첫소리로 옮겨가며 나는 소리를 잘못 발음해서
- ②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를 혼동하여 구분하지 않고 발음해서
- ③ 과도한 된소리나 거센소리를 뒤의 첫소리로 연이어 발음해서
- ④ 긴소리를 짧은소리와 구별하여 발음하지 않고 짧게 발음해서
- ⑤ 이중 모음의 발음을 단모음의 발음과 구분하지 않고 발음해서

2. 다음의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고3 2014학년도 6월 A 11번)

※다음 단어들을 발음해 보고 단계별 활동을 수행해 보자.

부엌, 간, 옷, 빛, 달, 섬, 앞, 창

- (1)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뀌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보자.
(㉠)
- (2) 음절 끝의 자음이 안 바뀌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자.
(㉡)
- (3)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뀌는 경우에는 어떤 자음으로 변하는지 정리해 보자.
(㉢)
- (4) (3)과 동일한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들을 더 찾아보자.
(㉣)
- (5) 이상의 활동을 바탕으로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의 목록을 정리해 보자.
(㉤)

- ① ㉠ :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뀌지 않는 경우는 ‘부엌, 간, 달, 섬, 창’이다.
- ② ㉡ : 음절 끝의 자음이 예사소리일 때에는 바뀌지 않는다.
- ③ ㉢ : 음운 변동이 일어나면 ‘ㄱ, ㄴ, ㄷ’ 중 하나로 바뀐다.
- ④ ㉣ : ‘ㅍ’과 ‘ㅁ’을 음운 변동의 예로 추가할 수 있다.
- ⑤ ㉤ : 음절 끝에서는 ‘ㄱ, ㄴ, ㄷ, ㅁ, ㅂ, ㅅ, ㅇ’만 발음된다.

국어 영역

3.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것은?
(고3 2020년 10월 13번)

— < 보 기 > —

선생님 : 음운 변동이 일어날 때에는 조음 위치 및 조음 방법이 변하기도 합니다. 다음 단어를 발음할 때 일어나는 변화를 자음 체계를 참고하여 설명해 볼까요?

만이[마지], 꽃눈[꼰눈], 강릉[강능], 실내[실래],
 앞날[암날]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파열음	ㅂ/ㅃ/ㅍ	ㄷ/ㄸ/ㅌ		ㄱ/ㅋ/ㆁ	
파찰음			ㅈ/ㅉ/ㅊ		
마찰음		ㅅ/ㅆ			ㅎ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 ① '만이'를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서는 조음 위치만 한 번 변합니다.
- ② '꽃눈'을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서는 조음 위치만 두 번 변합니다.
- ③ '강릉'을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서는 조음 방법만 한 번 변합니다.
- ④ '실내'를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서는 조음 위치가 변한 후 조음 방법이 변합니다.
- ⑤ '앞날'을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서는 조음 방법이 변한 후 조음 위치가 변합니다.

4. <보기>의 ㉠과 ㉡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고3 2020년 10월 38번)

— < 보 기 > —

탐구 주제 : '훑다'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훑따]로 발음될까?
[자료]

(1) 종성의 'ㄱ, ㅋ', 'ㅅ, ㅆ, ㅈ, ㅊ, ㅌ', 'ㄷ'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ㅌ]으로 발음한다.
 (2)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음절 종성에 두 개의 자음이 놓이면 두 개의 자음 중 하나만 발음한다.
 (3) 종성의 'ㄱ, ㄷ, ㅌ'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ㅌ, ㅅ, ㅆ'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4) 같다[갈다], 날겠다[날겐따], 거칠더라도[거칠더라도]

탐구 과정 :

가설 1 : 어간의 종성에서 탈락이 일어난 후에 어미의 초성에서 교체가 일어난다.
 → '[자료] (4)'에서 확인되듯이, 어간이 (㉠) 끝날 때 그 어간 바로 뒤에 오는 어미의 초성에서는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지 않음.

가설 2 : 어간의 종성과 어미의 초성에서 교체가 일어난 후에 어간의 종성에서 탈락이 일어난다.
 → '[자료] (1)'의 현상이 어간 종성에서 일어나 어간 종성의 'ㄷ'이 (㉡), '[자료] (3)'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 이후 '[자료] (2)'의 현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음.

탐구 결과 : '가설 1'을 기각하고 '가설 2'를 받아들인다.

- | | | | |
|---|-------|-------------|---|
| | ㉠ | | ㉡ |
| ① | 'ㄷ'으로 | 'ㄷ'으로 교체된 후 | |
| ② | 'ㄷ'으로 | 탈락하게 된 후 | |
| ③ | 'ㄹ'로 | 'ㄷ'으로 교체된 후 | |
| ④ | 'ㄹ'로 | 탈락하게 된 후 | |
| ⑤ | 'ㅆ'으로 | 'ㄷ'으로 교체된 후 | |

국어 영역

5.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 ~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3 2017년 4월 11번)

< 보 기 1 >

[구개음화]
교체 현상의 하나로, 받침이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 [j]’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그것이 각각 구개음 [ㅈ], [ㅊ]이 되거나, ‘ㄷ’ 뒤에 형식 형태소 ‘-히-’가 올 때 ‘ㅎ’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ㅌ]이 [ㅊ]이 되는 현상.

< 보 기 2 >

○ 나는 벽에 ㉠ 붙인 게시물을 떼었다.
○ 교수는 문제의 원인을 ㉡ 낱낱이 밝혔다.
○ 그녀는 평생 ㉢ 발이랑을 일구며 살았다.
○ 그의 말소리는 소음에 ㉣ 묻히고 말았다.
○ 그는 겨울에도 방에서 ㉤ 홀이불을 덮고 잤다.

- ① ㉠의 ‘붙-’은 접미사의 모음 ‘ㅣ’와 만나므로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② ㉡의 ‘-이’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낱’의 받침 ‘ㅌ’은 [ㅊ]으로 발음되지 않는다.
- ③ ㉢의 ‘이랑’은 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이므로 ‘발’의 ‘ㅌ’은 [ㅊ]으로 발음된다.
- ④ ㉣의 ‘묻-’은 접미사 ‘-히-’와 만나므로 ‘ㄷ’이 ‘ㅎ’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ㅌ]은 [ㅊ]으로 발음된다.
- ⑤ ㉤의 ‘홀-’과 결합한 ‘이불’은 모음 ‘ㅣ’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홀-’의 받침 ‘ㅌ’은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6.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고3 2023학년도 9월 39번)

학생 : 선생님, 표준 발음법 제18항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이 조항에서 ‘ㄱ, ㄷ, ㅂ’ 옆의 괄호 안에 다른 받침들이 포함된 것은 무엇을 나타내나요?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ㅌ), ㄷ(ㄷ, ㅌ, ㅊ, ㅌ), ㅂ(ㅂ, ㅍ, ㅍ, ㅍ)’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선생님 : 좋은 질문이에요. 그건 받침이 ‘ㄱ, ㄷ, ㅂ’이 아니더라도, 음운 변동의 결과로 그 발음이 [ㄱ, ㄷ, ㅂ]으로 바뀌면 비음화 현상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 거예요.

학생 : 아, 그렇다면 [A] 비음화 현상이 적용된 거네요?

선생님 : 네, 맞아요.

- ① ‘밖만[방만]’은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후
- ② ‘폭뽏다[풍넝따]’는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후
- ③ ‘값만[감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 ④ ‘겉늬다[건늬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 ⑤ ‘호박잎[호방닙]’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국어 영역

7.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고3 2019 7월 12번)

< 보 기 >

국어에서 ‘ㄴ’과 ‘ㄹ’ 소리를 전달아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ㄹ’과 ‘ㄴ’이 연쇄적으로 발음될 때 순행적 유음화가 일어나고, 반대로 ‘ㄴ’과 ‘ㄹ’이 연쇄적으로 발음될 때 ㉠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순행적 유음화나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날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용언의 활용이나 합성어, 파생어 형성 과정에서 순행적 유음화가 아닌 ‘ㄹ’ 탈락이 일어나기도 하고, 역행적 유음화가 아닌 ㉡ ‘ㄹ’의 비음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 | | |
|-------|-----|
| ㉠ | ㉡ |
| ① 산란기 | 표현력 |
| ② 줄넘기 | 입원료 |
| ③ 결단력 | 생산량 |
| ④ 의견란 | 향신료 |
| ⑤ 대관령 | 물난리 |

8. 다음은 음운 현상과 관련된 ‘학습 활동’의 일부이다. ㉠와 ㉡에 들어갈 단어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고2 2013년 11월 A 11번)

학습 활동

아래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여, 제시된 단어들을 발음해 보고 단계별 활동을 수행해 보자.

음운 변동이란, 환경에 따라 원래의 음운 모습 그대로 발음되지 않고 바뀌어 발음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음 ‘ㄱ, ㄷ’이 ‘ㄴ’이나 ‘ㄹ’의 영향을 받아 각각 ‘ㅇ, ㄴ’으로 발음되는 등의 ‘자음 동화’, ‘ㄷ, ㅌ’이 ‘ㄹ’의 영향을 받아 각각 ‘ㄷ, ㅌ’으로 발음되는 ‘구개음화’, 음절 끝에 위치한 ‘ㅈ, ㅊ’이 각각 ‘ㄷ, ㅌ’으로 발음되는 등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같은 것이 모두 음운 변동의 사례에 해당한다.

굳이, 꽃, 부엌, 곡물, 속는다,
만며느리

<p style="text-align: center;">(질문 1) 인접한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아서 발음이 변했나요?</p> <p>① 예 ()</p> <p>② 아니오 (㉠)</p>	<p style="text-align: center;">(질문 2) 어떤 음운의 영향을 받아서 변했나요?</p> <p>① 자음의 영향을 받은 경우 (㉡)</p> <p>② 모음의 영향을 받은 경우 ()</p>
--	--

- | | |
|-------------|------------------|
| ㉠ | ㉡ |
| ① 굳이, 부엌 | 꽃, 곡물 |
| ② 속는다, 만며느리 | 굳이, 곡물 |
| ③ 꽃, 부엌 | 굳이, 속는다,
만며느리 |
| ④ 굳이, 꽃 | 부엌, 속는다,
만며느리 |
| ⑤ 꽃, 부엌 | 곡물, 속는다,
만며느리 |

국어 영역

9. <보기 1>을 활용하여 <보기 2>의 음운 변동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고2 2017년 6월 13번)

<보 기 1>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입술소리	잇몸소리	센입천장 소리	여린입천 장소리
파열음	ㅂ, ㅍ	ㄷ, ㅌ		ㄱ, ㅋ
파찰음			ㅈ, ㅊ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보 기 2>

㉠국민→[궁민] ㉡물난리→[물랄리] ㉢굳이→[구지]

- ① ㉠은 첫음절 끝의 파열음이 뒤의 자음과 결합하여 유음으로 바뀌었다.
- ② ㉡은 유음이 앞뒤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으로 바뀌었다.
- ③ ㉢은 여린입천장소리가 뒤의 자음을 닮아 센입천장소리로 바뀌었다.
- ④ ㉠과 ㉡에서 변동된 음운은 조음 방법이 변화였다.
- ⑤ ㉡과 ㉢에서 변동된 음운은 조음 위치가 변화였다.

10. <보기>는 '구개음화'에 대한 탐구과제를 수행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2 2011년 11월 12번)

< 보 기 >

탐구과제 :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 국어에서 일어나는 구개음화 현상을 검토하시오.

기본 자료
 굳이[구지], 같이[가치], 붙이다[부치다]
 → 'ㄷ, ㅌ'은 'ㅣ'모음 앞에서 'ㅈ, ㅊ'으로 발음된다.

심화 자료

- ㉠ 붙여[부처], 달혀[다쳐]
- ㉡ 마디(節)[마디], 티[티]
- ㉢ 미달이[미다지], 날낱이[난나치]
- ㉣ 훌이불[훈니불], 발이랑[반니랑]
- ㉤ 묻히다[무티다 → 무치다], 갈히다[가티다 → 가치다]

심화 자료를 통한 검토 내용

- ㉠ : 구개음화는 모음 'ㅣ'뿐만 아니라 'ㅜ' 앞에서도 일어난다. ①
- ㉡ : 구개음화는 한 형태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②
- ㉢ : 구개음화는 두 번째 음절 이후에서도 일어난다. ③
- ㉣ : 구개음화는 실질 형태소끼리 결합할 때에도 일어난다. ④
- ㉤ : 구개음화는 두 자음이 하나로 축약된 다음에도 일어난다. ⑤

국어 영역

11. <보기>의 ㉠ ~ ㉥을 활용하여 현대의 '구개음화'를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고2 2018년 9월 14번)

< 보 기 >

㉠ 맏이[마지], 같이[가치]
 ㉡ 밭이[바치], 밭을[바틀]
 ㉢ 굳히다[구치다], 닫히다[다치다]
 ㉣ 밀이[미치], 끝인사[끄딘사]
 ㉤ 해돋이[해도지], 견디다[견디다]

- ① ㉠을 보니, 'ㄷ'이나 'ㄷ'이 끝소리일 때 구개음화가 일어나는군.
- ② ㉡을 보니, 'ㄷ'이 특정한 모음과 만날 때 구개음화가 일어나는군.
- ③ ㉢을 보니, 'ㄷ' 뒤에서 'ㅎ'이 탈락할 때 구개음화가 일어나는군.
- ④ ㉣을 보니, 'ㄷ' 뒤에 실질 형태소가 올 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군.
- ⑤ ㉤을 보니,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군.

12. <보기>의 '활동 1'과 '활동 2'를 연결하여 '활동 자료'의 단어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고1 2019년 3월 14번)

< 보 기 >

[활동 자료]
 국민[궁민], 글눈[글룬], 명량[명냥], 신량[실량], 잡념[잠념]

[활동 1] 음운 변동이 있는 음운은 '1', 없는 음운은 '0'으로 표시하면 '국물[궁물]'은 '001000'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활동 자료'의 단어는 어떻게 표시될까요?

ㄱ	→	ㄱ	→	0
ㅍ	→	ㅍ	→	0
ㄷ	→	ㅌ	→	1

ㅁ	→	ㅁ	→	0
ㅌ	→	ㅌ	→	0
ㄹ	→	ㄹ	→	0

[활동 2] '활동 자료'의 단어를 발음할 때 순행 동화가 일어나는지 역행 동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봅시다.

- 순행 동화 : 뒤의 음운이 앞의 음운의 영향을 받아 그와 비슷하거나 같게 소리 나는 현상.
- 역행 동화 : 앞의 음운이 뒤의 음운의 영향을 받아 그와 비슷하거나 같게 소리 나는 현상.

- ① '국민'은 '001000'으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순행 동화이다.
- ② '글눈'은 '000100'으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역행 동화이다.
- ③ '명량'은 '001000'으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순행 동화이다.
- ④ '신량'은 '000100'으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역행 동화이다.
- ⑤ '잡념'은 '001000'으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역행 동화이다.

국어 영역

13. <보기>의 ㉠, ㉡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고1 2016년 6월 11번)

— < 보 기 > —

된소리되기는 ‘ㄱ, ㄷ, ㅂ, ㅅ, ㅈ’과 같은 예사소리가 ‘ㄱ, ㄷ, ㅂ, ㅅ, ㅈ’과 같은 된소리로 바뀌어 소리 나는 음운 현상이다. 된소리되기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받침 ‘ㄱ, ㄷ, ㅂ’ 뒤에 연결되는 자음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유형
- 어간 받침 ‘ㄴ(ㄴ), ㅁ(ㅁ)’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유형 ㉠
-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결합되는 자음 ‘ㄷ,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유형 ㉡

- | | |
|------|--------|
| ㉠ | ㉡ |
| ① 신다 | 굴곡(屈曲) |
| ② 안다 | 불법(不法) |
| ③ 넓다 | 갈등(葛藤) |
| ④ 담다 | 발전(發展) |
| ⑤ 끊다 | 월세(月貰) |

14. <보기>를 바탕으로 사례들을 분석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1 2018년 11월 11번)

— < 보 기 > —

음운의 교체는 특정한 음운 환경에서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 현상이다. 두 음절이 인접한 경우 ㉠ 앞말의 끝소리와 뒷말의 첫소리가 만나는 상황이나 ㉡ 앞말의 끝소리가 연음되어 뒷말의 가운뎃소리와 만나는 상황에서 음운이 교체될 때, 발음의 결과 ㉢ 앞의 음운만 변한 경우나 ㉣ 뒤의 음운만 변한 경우도 있지만 ㉤ 두 음운이 모두 변한 경우도 있다.

- ① ‘마천루[마철루]’는 ㉠이면서 ㉢에 해당한다.
- ② ‘목덜미[목떨미]’는 ㉠이면서 ㉣에 해당한다.
- ③ ‘박람회[방남회]’는 ㉠이면서 ㉤에 해당한다.
- ④ ‘쇠붙이[쇠부치]’는 ㉡이면서 ㉢에 해당한다.
- ⑤ ‘땀받이[땀바지]’는 ㉡이면서 ㉤에 해당한다.

국어 영역

15. <보기>의 설명에 따를 때, ㉠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고1 2015년 3월 11번)

< 보 기 >

자음 두 개가 음절 끝에 놓일 때, 둘 중에서 하나의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을 ‘자음군 단순화’라고 한다. 다음 그림은 ‘촬’([촬] → [척])과 같이 끝소리에 위치한 두 자음 중 앞에 있는 자음(자음²)이 탈락하여 뒤에 있는 자음(자음³)만 발음되는 현상을 시각화한 것이다.

자음 ¹	모음
ㅈ	ㅣ
ㄹ	ㄱ
자음 ²	자음 ³

⇒

자음 ¹	모음
ㅈ	ㅣ
ㄱ	
자음 ³	

반면, 다음 그림은 ㉠과 같이 끝소리에 위치한 두 자음 중 뒤에 있는 자음(자음³)이 탈락하여 앞에 있는 자음(자음²)만 발음되는 현상을 시각화한 것이다.

자음 ¹	모음
자음 ²	자음 ³

⇒

자음 ¹	모음
자음 ²	

- ㉠ 값, 녃 ㉡ 값, 닭 ㉢ 값, 삶 ㉣ 녃, 삶 ㉤ 닭, 삶

16. <자료>를 보고 ‘음운의 변동’에 관한 탐구 학습을 수행한 결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고2 2011년 학업성취도평가 11번)

< 자 료 >

음운 변동	원래 음운	남은 음운
㉠ 살- + -는 → [사는]	ㄹ+ㄴ	ㄴ
㉡ 종- + -아 → [조아]	ㅎ+ㅈ	ㅈ
㉢ 많- + -아 → [마나]	ㄴ+ㅎ+ㅈ	나
㉣ 가- + -아 → [가]	ㅈ+ㅈ	ㅈ

- ① ㉠, ㉡을 보니 앞 자음이 탈락하는군.
 ② ㉠, ㉢을 보니 두 음운이 만나 다른 음운으로 변하는군.
 ③ ㉡, ㉣을 보니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ㅎ’이 탈락하는군.
 ④ ㉣을 보니 연속된 같은 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군.
 ⑤ ㉠ ~ ㉣을 보니 자음이든 모음이든 탈락할 수 있군.

국어 영역

17.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고3 2022년 7월 37번)

< 학습 활동 >

[자료]의 단어들은 음운 변동 중 탈락이 일어난 예이다. 단어들을 [분류 과정]에 따라 분류할 때 ㉠, ㉡, ㉢에 들어갈 단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료]

㉠ 뜨 + 어서 → 떠서[떠서]
 ㉡ 등글 + ㄴ → 등근[등근]
 ㉢ 좋 + 아 → 좋아[조:아]

[분류 과정]

```

    자료 → { 자음이 탈락하였나요? }
    |
    | 예
    |
    | {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나요? }
    |
    | 예 → ㉣
    |
    | 아니요 → ㉠
    |
    | 아니요 → ㉡
    
```

- | | | | |
|---|---|---|---|
| | ㉠ | ㉡ | ㉣ |
| ① | a | c | b |
| ② | a | b | c |
| ③ | c | a | b |
| ④ | c | b | a |
| ⑤ | b | a | c |

18. <보기>의 '선생님'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고1 2020년 3월 11번)

< 보 기 >

선생님 : 음운 변동이 여러 번 일어날 때 최종적으로 음운의 수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죠? 오늘은 좌표를 이용해서 이를 쉽게 확인해 볼게요.

이 좌표 평면에서 0인 별표(★)를 기준으로, 음운의 수가 늘어나는 '첨가'는 늘어난 음운 수만큼 위쪽으로, 음운의 수가 줄어드는 '탈락'과 '축약'은 줄어든 음운 수만큼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음운의 수가 변하지 않는 '교체'는 교체 횟수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걷히다'는 거센소리되기에 의해 [거티다]가 된 후 구개음화에 의해 [거치다]가 되므로, 축약과 교체가 한 번씩 일어나 ㉡로 이동합니다. 그 결과 음운의 수가 한 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색연필'의 음운 변동 양상은 어떻게 될까요?

학 생 : 제 생각에는 '색연필'이 '[색년필 → 생년필]'로 바뀌므로, (㉠)이/가 한 번씩 일어나 (㉡)로 이동합니다. 그 결과 음운의 수가 한 개 늘어납니다.

- | | | |
|---|--------|---|
| | ㉠ | ㉡ |
| ① | 첨가와 교체 | 가 |
| ② | 첨가와 교체 | 나 |
| ③ | 첨가와 탈락 | 다 |
| ④ | 탈락과 교체 | 라 |
| ⑤ | 탈락과 교체 | 마 |

국어 영역

19.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 2016년 9월 11번)

[질문]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발음 원리와 함께 설명해 주세요.

㉠ 한여름, ㉡ 대관령에 올라 ㉢ 좋은 것만 가지려는 ㉣ 욕망을 버리고 나니, ㉤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 없었다.

[답 변]

- ① ㉠은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반모음 ‘ㄹ’로 시작할 때, ‘ㄴ’ 소리를 첨가하므로 [한너름]이라고 읽습니다.
- ② ㉡은 ‘ㄴ’이 ‘ㄹ’ 앞에서 ‘ㄹ’의 영향을 받으므로 [대관녕]이라고 읽습니다.
- ③ ㉢은 받침 ‘ㅎ’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탈락하므로 [조은]이라고 읽습니다.
- ④ ㉣은 ‘ㄱ’이 비음 앞에서 발음이 바뀌므로 [용망]이라고 읽습니다.
- ⑤ ㉤은 ‘ㅎ’과 ‘ㄱ’이 어울려 거센소리가 되므로 [그러케]라고 읽습니다.

20. 다음은 표준 발음에 대한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각 예에 적용된 내용과 그 발음이 모두 바른 것은? [3점] (고1 2016년 11월 11번)

학 생 : 선생님, 저번 시간에 ㉠ 흡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고 하셨으니까 ‘막일’은 [마길]로 발음해야 하나요?

선생님 : 그렇지 않아요. ㉡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소리를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해야 하기 때문에 ‘막일’은 [망닐]로 발음해야 해요.

학 생 : 그러면 ‘막일’에서 ‘일’이 [닐]로 발음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막’은 왜 [망]으로 발음이 되는 거죠?

선생님 : 그것은 ㉢ 받침소리 [ㄱ, ㄷ, ㅂ]은 [ㄴ, ㅁ] 소리 앞에서 [ㅇ, ㄴ, ㅁ]으로 발음되는 현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닐]이 아니라 [망닐]로 발음해야 됩니다.

학 생 : 아,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 말고도 제가 더 알아둬야 할 것이 있나요?

선생님 : ㉣ [ㄴ] 소리가 첨가된 후, 이 [ㄴ] 소리가 받침소리 [ㄹ] 뒤에서 [ㄹ]로 발음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물약’을 [물략]으로 발음하는 것이 이에 해당해요.

	예	적용 내용	발음
①	눈 + 요기	㉠	[눈노기]
②	내복 + 약	㉡, ㉢	[내:봉낙]
③	색 + 연필	㉡, ㉢	[색년필]
④	들 + 일	㉡, ㉣	[들:닐]
⑤	칼 + 날	㉡, ㉣	[칼랄]

국어 영역

21. <보기>를 참고하여 음운 변동 사례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1 2019년 6월 13번)

< 보 기 >

음운의 변동은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으로 구분된다.

- ① '밤물[밤물]'이 발음될 때에는 'ㅂ'이 'ㅁ'의 영향을 받아 'ㅁ'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② '광한루[광:할루]'가 발음될 때에는 'ㄴ'이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③ '중아[조:아]'가 발음될 때에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만나 'ㅎ'이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④ '생연필[생년필]'이 발음될 때에는 첨가되는 'ㄴ'으로 인해 'ㄱ'이 'ㅇ'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⑤ '웃 한 벌[오탄벌]'이 발음될 때에는 'ㅅ'이 탈락한 후 첨가되는 'ㄷ'이 'ㅎ'과 만나 'ㅌ'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22. <보기>는 음운 변동에 대한 수업의 한 장면이다. 학생들의 활동 결과로 적절한 것은? (고2 2017년 11월 11번)

< 보 기 >

선생님 : 지난 시간에는 음운 변동 현상인 교체, 탈락, 축약, 첨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음운 변동이 두 가지 이상 나타나는 단어를 통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모둠별로 칠판에 제시한 단어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 현상을 분석한 후, 분석 결과에 따라 해당 항목에 알맞은 단어 카드를 붙여 볼까요?

맛없다	영업용	깨끗하다	급행열차
교체와 탈락 :a	교체와 축약 :b	교체와 첨가 :c	축약과 첨가 :d

- | | | | | |
|---|------|------|------|------|
| | a | b | c | d |
| ① | 급행열차 | 깨끗하다 | 맛없다 | 영업용 |
| ② | 맛없다 | 급행열차 | 영업용 | 깨끗하다 |
| ③ | 맛없다 | 깨끗하다 | 영업용 | 급행열차 |
| ④ | 깨끗하다 | 영업용 | 맛없다 | 급행열차 |
| ⑤ | 깨끗하다 | 맛없다 | 급행열차 | 영업용 |

국어 영역

23.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과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2 2019년 11월 11번)

< 보 기 1 >

음운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그것이다.

< 보 기 2 >

[학생이 작성한 학습지]

※ 빈칸에 ㉠ ~ ㉡의 표준 발음을 채우시오.

○ 가로 : ㉠ 굳히다

○ 세로 : ㉡ 훌이다

○ 가로 : ㉡ 꽃이슬

○ 세로 : ㉠ 숨이불

- ① ㉠은 ㉠에서 ‘교체’가, ㉡에서 ‘탈락’이 일어나 발음된 것이다.
- ② ㉡은 ㉡에서 ‘첨가’가, ㉠에서 ‘축약’이 일어나 발음된 것이다.
- ③ ㉠은 ㉠와 ㉡에서 공통적으로 ‘축약’이 일어나 발음된 것이다.
- ④ ㉡은 ㉡와 ㉠에서 공통적으로 ‘교체’가 일어나 발음된 것이다.
- ⑤ ㉡은 ㉡와 ㉠에서 공통적으로 ‘첨가’가 일어나 발음된 것이다.

24. <보기>는 문법 수업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한 것은? [3점] (고2 2019년 6월 13번)

< 보 기 >

선생님 : 음운의 변동은 발음 결과에 따라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 교체,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 탈락, 없던 음운이 추가되는 ㉢ 첨가,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으로 바뀌는 ㉣ 축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질문] 다음 밑줄 친 부분에서 일어나는 음운의 변동 양상을 설명해 볼까요?

나는 어제 사 온 책을 읽느라 밤을 꼬박 새웠다. 목차만 훑고서 사 온 책은 기대보다 훨씬 재미있었다. 장시간 책을 봐서인지 머리가 아팠다. 그러나 예삿일로 생각해 어머니께서 챙겨 주신 알약을 먹지 않고 있다가 결국 몸살을 앓았다.

- ① ‘읽느라[잉느라]’에서 ㉠과 ㉡이 일어납니다.
- ② ‘훑고서[홀꼬서]’에서 ㉠과 ㉢이 일어납니다.
- ③ ‘예삿일[예산닐]’에서 ㉠과 ㉣이 일어납니다.
- ④ ‘알약을[알라글]’에서 ㉡과 ㉢이 일어납니다.
- ⑤ ‘앓았다[아랄따]’에서 ㉡과 ㉣이 일어납니다.

국어 영역

25.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고2 2020년 6월 13번)

< 보 기 >

아래의 단어들을 음운 변동 양상에 따라 둘로 분류할 때, 어떤 질문이 적절한지 알아봅시다.

놓는[논는], 닳아[다라], 막일[망닐], 칼날[칼랄]

질문	㉠	
	예	아니요
대답	놓는[논는], 칼날[칼랄]	닳아[다라], 막일[망닐]

- ① 음운 변동 전후 음운의 수가 동일한가?
- ② 자음과 모음의 변동이 모두 일어났는가?
- ③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는가?
- ④ 음운 변동이 앞 음절에서만 발생하였는가?
- ⑤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는가?

26. <보기>의 ㉠ ~ ㉤의 밑줄 친 부분과 동일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예가 모두 바르게 제시된 것은? (고3 2016년 7월 11번)

< 보 기 >

국어에는 자음군 단순화, 구개음화, 비음화, 된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 등의 음운 변동이 있다.

- ㉠ 우리는 자리를 옮겨서[움겨서] 밥을 먹었다.
- ㉡ 그녀는 내 말을 굳이[구지] 따지려 들지는 않았다.
- ㉢ 그는 정계에 입문하여[임문하여] 활동을 시작했다.
- ㉣ 나는 말을 더듬지[더듬찌] 않고 또박또박 대답했다.
- ㉤ 그는 듬직한[듬지칸] 성품으로 주변에 친구가 많았다.

- ① ㉠의 예 : 굽기다, 급하다
- ② ㉡의 예 : 미닫이, 뺨대다
- ③ ㉢의 예 : 집문서, 만누이
- ④ ㉣의 예 : 껴안다, 꿈같이
- ⑤ ㉤의 예 : 굽히다, 한여름

국어 영역

27.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고3 2022학년도 예시문항 37번)

< 보 기 >

수영 : 내일이 방송부 아나운서를 선발하는 날인데,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야.

진수 : 너무 걱정 마. 내가 대본에다가 발음에 주의해야 할 단어들의 표준 발음을 표시해 봤어. 확인해 봐.

[방송 대본]

어제는 책을 열심히 ㉠ 읽는[잉는] 친구에게 선물할 책을 사려고 ㉡ 서울역[서울력] 안에 있는 서점에 갔어요. ㉢ 복잡한 [복짜판] 인파를 헤치고 서점 ㉣ 깊숙이[깁쭈기] 들어가서 친구에게 줄 시집을 드디어 찾아냈지요. 시집을 펼쳐 마음에 드는 시를

수영 : 그런데 왜 이 발음이 표준 발음이지? 내가 아는 것과는 다른데..... 우리가 배운 음운 변동과 관련이 있는 거야?

진수 : 맞아. 각 단어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을 모두 살펴보면, _____ [A]

수영 : 그렇구나. 고마워.

- ① ㉠에서는 탈락과 교체가 한 번씩 일어나 [잉는]으로 발음돼.
- ② ㉡에서는 한 번의 첨가가 일어나 [서울력]으로 발음돼.
- ③ ㉢에서는 축약과 교체가 한 번씩 일어나 [복짜판]으로 발음돼.
- ④ ㉣에서는 두 번의 교체가 일어나 [깁쭈기]로 발음돼.
- ⑤ ㉤에서는 한 번의 탈락과 두 번의 교체가 일어나 [읍따가]로 발음돼.

28. <보기>의 음운 변동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3 2020년 7월 11번)

< 보 기 >

㉠ 발일[반닐] ㉡ 훑는[훑른] ㉢ 같이[가치]

- ① ㉠에는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 ② ㉠과 ㉡은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생겼다.
- ③ ㉠은 실질 형태소끼리 결합할 때, ㉢은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 ④ ㉡은 자음으로 인한, ㉢은 모음으로 인한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 ⑤ ㉠, ㉡, ㉢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탈락과 교체가 아니다.

국어 영역

29. <보기>의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3 2022년 3월 35번)

< 보 기 >

[활동] 제시된 단어의 발음을 [자료]에 근거하여 탐구해 보자.

훙이[훙치]	훙어[훙터]	엷는[언는]
끓고[끓코]	끓는[끓른]	

[자료]

- 자음군 단순화만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후에 비음화나 유음화와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음.
- 자음군 단순화는, 두 자음 중 뒤의 자음이 구개음화되거나 뒤의 자음과 그다음 음절의 처음에 놓인 자음이 축약되면 일어나지 않음.
- 자음군 단순화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와서 뒤의 자음이 연음되면 일어나지 않음.

- ① '훙이[훙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 '-이'가 와서 'ㅈ'이 'ㅊ'으로 교체된 후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것이군.
- ② '훙어[훙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가 와서 'ㅈ'이 연음되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군.
- ③ '엷는[언는]'은 'ㄴ' 중 뒤의 자음인 'ㅈ'이 탈락되어 자음군 단순화만 일어난 것이군.
- ④ '끓고[끓코]'는 'ㅎ'과 그다음 음절의 'ㄱ'이 축약되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군.
- ⑤ '끓는[끓른]'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후 남은 'ㄹ'로 인해 'ㄴ'이 'ㄹ'로 교체된 것이군.

30.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고3 2020학년도 수능 13번)

< 보 기 >

선생님 : 음절은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언어 단위인데, 음절의 유형은 크게 분류하면 '① 모음, ② 자음 + 모음, ③ 모음 + 자음, ④ 자음 + 모음 + 자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꽃[꼇]'은 ④, '잎[입]'은 ③에 속하지요. 그런데 복합어 '꽃잎'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 [꼇닙]으로 발음돼요. 이때 [닙]은 ④에 해당되며 음운의 첨가로 음절 유형이 바뀐 것이지요.

이제 아래 단어들을 탐구해 봅시다.

밥상(밥 + 상), 집일(집 + 일), 의복함(의복 + 함), 국물(국 + 물), 화살(활 + 살)
--

학생 : [A]

선생님 : 네, 맞아요.

- ① '밥상[밥쌍]'에서의 [쌍]은 첨가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상[상]'과 달라졌어요.
- ② '집일[집닐]'에서의 [닐]은 교체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일[일]'과 달라졌어요.
- ③ '의복함[의보캄]'에서의 [캄]은 축약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함[함]'과 달라졌어요.
- ④ '국물[궁물]'에서의 [궁]은 교체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국[국]'과 같아요.
- ⑤ '화살[화살]'에서의 [화]는 탈락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활[활]'과 같아요.

국어 영역

31. <보기>의 자료에 나타난 음운 변동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3 2018년 10월 11번)

- < 보 기 >
- Ⓐ 농고[노코], 낱던[나:턴], 쌓지[싸치]
 - Ⓑ 당소[다:쏘], 종소[조:쏘]
 - Ⓒ 농는[논는], 쌓네[싼네]
 - Ⓓ 않는[안는], 많네[만:네]
 - Ⓔ 낳은[나은], 놓아[노아], 쌓이다[싸이다]

- ① Ⓐ를 보니, 받침 ‘ㅎ’ 뒤에 ‘ㄱ, ㄷ, ㅈ’이 오는 경우에는 축약이 일어난다.
- ② Ⓑ를 보니, 받침 ‘ㅎ’ 뒤에 ‘ㅅ’이 오는 경우에는 교체와 축약이 일어난다.
- ③ Ⓒ를 보니, 받침 ‘ㅎ’ 뒤에 ‘ㄴ’이 오는 경우에는 교체가 두 번 일어난다.
- ④ Ⓓ를 보니, 받침 ‘ㄴ’ 뒤에 ‘ㄴ’이 오는 경우에는 탈락이 일어난다.
- ⑤ Ⓔ를 보니, 받침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는 탈락이 일어난다.

32. <보기>의 ㉠ ~ ㉤를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고3 2019년 10월 11번)

- < 보 기 >
- ㉠ 밭일을 하며 밭에 ㉡ 밭힌 벌을 보았다.
 - ㉢ 술한 시련을 이겨 내 승리를 ㉣ 굳혔다.

- ① ㉠에서는 뒷말의 초성이 앞말의 종성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 ② ㉠에서는 ‘일’이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 ③ ㉡와 ㉣에서는 모두 음운 변동의 결과 전체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
- ④ ㉡와 ㉣에서는 모두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현상이 일어난다.
- ⑤ ㉢와 ㉣에서는 모두 거센소리되기가 먼저 일어난 후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국어 영역

33.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고3 2019학년도 6월 14번)

< 보 기 >

○ 탐구 과제
 겹받침을 가진 용언을 발음할 때 어떤 음운 변동이 나타나야 표준 발음에 맞는지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 자음 군 단순화, 된소리되기, 비음화, 유음화, 거센소리되기 등의 음운 변동으로 비표준 발음과 표준 발음을 설명해 보자.

○ 탐구 자료

	비표준 발음	표준 발음
㉠ 굵는	[글른]	[궁는]
㉡ 째네	[째네]	[잘레]
㉢ 꿩기고	[끈기고]	[끈키고]
㉣ 뚫지	[뚫찌]	[뚫치]

○ 탐구 내용
 ㉠의 비표준 발음과 ㉡의 표준 발음에는 자음군 단순화 후 (㉠)가 나타난다. 이에 비해, ㉠의 표준 발음과 ㉡의 비표준 발음에는 자음군 단순화 후 (㉡)가 나타난다. ㉢과 ㉣의 표준 발음은 (㉢)만 일어난 발음이다.

- | | ㉠ | ㉡ | ㉢ |
|---|-----|-------|--------|
| ① | 유음화 | 비음화 | 거센소리되기 |
| ② | 유음화 | 비음화 | 된소리되기 |
| ③ | 비음화 | 유음화 | 거센소리되기 |
| ④ | 비음화 | 유음화 | 된소리되기 |
| ⑤ | 비음화 | 된소리되기 | 거센소리되기 |

34.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3점] (고3 2020학년도 9월 13번)

< 보 기 >

선생님 :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부정확한 발음에 대해 알아보을까요? 우선 아래 표에서 부정확한 발음과 정확한 발음을 확인해 보세요.

예	찰흙이	안팎을	넋이	끝을	숲에
부정확한 발음	[찰흐기]	[안파글]	[너기]	[끄출]	[수베]
↓ ↓ ↓ ↓ ↓					
정확한 발음	[찰흙기]	[안파곶]	[넋씨]	[끄뜰]	[수페]

다 봤나요? 그럼 정확한 발음을 참고하여, 부정확한 발음을 하게 된 이유를 말해 볼까요?

학생 : ㉠

선생님 :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정확한 발음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보세요.

- ① ‘찰흙이’는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고 연음해야 하는데, [찰흐기]는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지 않고 연음을 했습니다.
- ② ‘안팎을’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연음해야 하는데, [안파글]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연음을 했습니다.
- ③ ‘넋이’는 연음을 하고 된소리되기를 적용해야 하는데, [너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연음을 했습니다.
- ④ ‘끝을’은 연음을 하고 구개음화를 적용해야 하는데, [끄출]은 구개음화를 적용하고 연음을 했습니다.
- ⑤ ‘숲에’는 거센소리되기를 적용하지 않고 연음해야 하는데, [수베]는 거센소리되기를 적용하고 연음을 했습니다.

국어 영역

35.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 사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고3 2018학년도 6월 13번)

< 보 기 >

교체, 탈락, 축약, 첨가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 개수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먼저 '집일[짐닐]'은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늘었다. 그런데 '닭만[당만]'은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고, '뜻하다[뜨타다]'는 교체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한편 '말는[만는]'은 교체가 두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다.

- ① '흙하고[흐카고]'는 탈락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두 개 줄었군.
- ② '저녁연기[저녕년기]'는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두 개 늘었군.
- ③ '부엌문[부엌문]'과 '볶는[봉는]'은 교체가 한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군.
- ④ '엷지[언찌]'와 '뭉고[물꼬]'는 교체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각각 한 개 줄었군.
- ⑤ '넓네[널레]'와 '밝는[방는]'은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각각 두 개 줄었군.

36.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3 2020학년도 6월 14번)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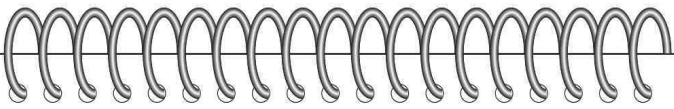
㉠ 풀잎[풀립] ㉡ 읊네[음네] ㉢ 벼훤이[벼훤치]

- ① ㉠, ㉡에서는 음운 변동이 각각 세 번씩 일어났군.
- ② ㉠, ㉡에서는 인접한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 ③ ㉠에서 첨가된 음운과 ㉡에서 탈락된 음운은 서로 다르군.
- ④ ㉠, ㉢에서는 음운 개수가 달라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 ⑤ ㉠은 'ㄹ'로 인해, ㉢은 모음 'ㅣ'로 인해 동화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국어 영역

37. 다음의 ㉠에 해당하는 것을 ㉡ ~ ㉣ 중에서 바르게 고른 것은?
(고3 2021년도 4월 37번)

원격 수업에서 활용하기 위해 우리말 음성을 한글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아래는 이 프로그램의 개발자가 쓴 일지의 일부이다.



○ 프로그램의 원리

사용자가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된 자료를 표준 발음법에 따라 발음하면, 프로그램은 그 발음에 나타난 음운 변동 현상을 분석해 본래의 표기된 자료로 출력한다.

○ 확인된 문제

프로그램이 입력된 발음을 본래의 자료로 출력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아래의 잘못 출력된 사례에서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된 자료와 출력된 자료를 대조해 ㉠ 교체, ㉡ 탈락, ㉢ 첨가, ㉣ 축약 중 ㉠ 프로그램이 분석하지 못한 음운 변동 현상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다.

표기된 자료	표준 발음	출력된 자료
끓어지다	[끄너지다]	끄너지다
없애다	[업:쌌다]	업쌌다
피붙이	[피부치]	피부치
웃어른	[우더른]	우더른
암탉	[암탁]	암탁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38.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의 탈락에 대해 이해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1 2013년 11월 11번)

- < 보 기 > —
- ㉠ ‘돌다’의 활용 : ‘돌-’ + ‘-고’ → 돌고, ‘돌-’ + ‘-니’ → 도니
 - ㉡ ‘낱다’의 활용 : ‘낱-’ + ‘-고’ → 낱고, ‘낱-’ + ‘-아’ → 낱아
 - ㉢ ‘쓰다’의 활용 : ‘쓰-’ + ‘-고’ → 쓰고, ‘쓰-’ + ‘-어’ → 써
 - ㉣ ‘가다’의 활용 : ‘가-’ + ‘-고’ → 가고, ‘가-’ + ‘-아’ → 가

- ① ㉠에서는 어간의 끝소리 ‘ㄹ’이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되는군.
- ② ㉡에서는 ‘낱아’를 [나아]로 발음하므로 음운의 탈락이 표기에 반영되는군.
- ③ ㉢에서는 어간의 모음 ‘-’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되는군.
- ④ ㉣에서는 어간의 모음과 동일 음운이 연결될 경우 한 음운이 탈락되는군.
- ⑤ ㉠ ~ ㉣를 보니, 음운의 탈락에는 자음의 탈락과 모음의 탈락이 있음을 알 수 있군.

국어 영역

39. <보기>의 ㉠이 일어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고2 2021년 3월 15번)

— < 보 기 > —

음운 변동에는 ㉠ 교체, 탈락, 첨가 등이 있는데, 용언의 활용에서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날 때에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모음의 음운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모음 종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 단모음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반모음 : ㅛ, ㅝ/ㅟ
- 이중 모음(반모음 + 단모음) : ㅟ, ㅑ, ㅓ, ㅛ, ㅗ, ㅜ, ㅠ, ㅡ, ㅣ ...

예를 들어 '오-+-아'가 [와]로 되는 음운 변동을 설명하면,

	(변동 전)	(변동 후)
오- + -아	ㅗ + ㅏ	ㅑ

와 같이 교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 례	변동 전	변동 후
①	뛰- + -어 → [뛰여]	ㅌ + ㅓ	ㅌ + ㅓ
②	살피- + -어 → [살펴]	ㅍ + ㅓ	ㅑ
③	치르- + -어 → [치러]	ㄷ + ㅓ	ㅓ
④	끼- + -어 → [끼여]	ㄷ + ㅓ	ㅓ + ㅓ
⑤	자- + -아서 → [자서]	ㅈ + ㅏ	ㅓ

40.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고3 2021학년도 9월 11번)

— < 보 기 > —

선생님 : 용언 어간 뒤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령, 어간 '오-'와 어미 '-아'가 결합해 [와]로 발음될 때, 단모음 'ㅗ'가 반모음 'ㅟ'로 교체되는 것이지요. 우리말의 반모음은 'ㅟ'도 있으니까 반모음 'ㅟ'로 교체되는 예도 있겠죠? 그럼 용언 어간의 단모음이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반모음 'ㅟ'로 교체되는 예를 들어 볼까요?

학생 : 네, ㉠로 발음되는 예를 들 수 있어요.

- ① 어간 '뛰-'와 어미 '-어'가 결합해 [뛰여]
- ② 어간 '차-'와 어미 '-아도'가 결합해 [차도]
- ③ 어간 '잠그-'와 어미 '-아'가 결합해 [잠가]
- ④ 어간 '견디-'와 어미 '-어서'가 결합해 [견더서]
- ⑤ 어간 '키우-'와 어미 '-어라'가 결합해 [키위라]

국어 영역

41. 다음은 문법 수업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고3 2013년 4월 AB 12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 자음 동화

자음 동화에는, 자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ㄹ’ 앞에서 비음의 영향을 받아 각각 ‘ㅇ, ㄴ, ㄹ’으로 발음되는 ‘비음화’와 자음 ‘ㄴ’이 유음 ‘ㄹ’의 앞이나 뒤에서 유음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발음되는 ‘유음화’가 있다. ‘국물[궁물]’은 ‘ㄱ’이 ‘ㄹ’ 앞에서 ‘ㅇ’으로 발음되는 비음화의 사례이며, ‘난리[날리]’는 ‘ㄴ’이 ‘ㄹ’ 앞에서 ‘ㄹ’로 발음되는 유음화의 사례이다.

선생님의 설명

‘음운의 첨가’란 원래는 없던 소리가 첨가되어 발음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맨입으로는 알려 줄 수 없다.’에서 ‘맨입’은 ‘[맨닙]’으로 발음됩니다.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이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뒷말의 첫 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되기 때문이지요. 또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ㄴ, ㄹ’으로 시작되는 경우에도 앞말의 끝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됩니다. 이때에는 ‘뒷문[뉘문]’의 경우처럼 앞말에 사이시옷(‘ㅅ’)을 넣어서 이를 표시해 준답니다.

< 보 기 >

- ㄱ. 그는 날렵한 ㉠ 콧날[곤날]이 매우 인상적이다.
- ㄴ. 나는 아끼던 ㉡ 색연필[생년필]을 잃어버려 속이 상했다.
- ㄷ. 그 사람은 회사의 ㉢ 막일[망닐]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 ㄹ. 아이가 아직 알약을 먹지 못해서 ㉣ 물약[물략]을 지어갔다.
- ㅁ. 그녀는 ㉤ 잇몸[인똥]이 약해져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 ① ㉠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ㄴ’으로 시작되는 합성어이므로 앞말의 끝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 ② ㉡에서 ‘ㄴ’ 소리가 첨가된 이유는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이 ‘여’로 시작하는 합성어이기 때문이군.
- ③ ㉢은 ‘ㄴ’ 소리가 첨가된 후, ‘ㄹ’의 영향으로 ‘ㄱ’이 비음화 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 ④ ㉣은 ‘ㄴ’ 소리가 첨가되어 ‘[물략]’으로 바뀐 후, ‘ㄹ’의 영향으로 유음화가 일어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 ⑤ ㉤은 사이시옷을 넣어서 ‘ㄴ’ 소리가 첨가됨을 표시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42. <보기>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발음하지 않은 것은? (고2 2010년 11월 12번)

< 보 기 >

제30항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1.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2. 사이시옷 뒤에 ‘ㄴ, ㄹ’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3. 사이시옷 뒤에 ‘이’ 소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니]으로 발음한다.

어렸을 때 외할머니 댁에 놀러갔던 생각이 납니다. 외할머니 댁은 ① 뒷마루[툰마루]가 있는 아담한 한옥으로 마당에는 ② 나뭇잎[나뭇닙]이 무성한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담 옆으로 난 ③ 샛길[새길]을 따라가다 보면 작은 ④ 냇가[넉까]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평평한 ⑤ 빨랫돌[빨래뜰]과 징검다리가 있었습니다.

국어 영역

43. <보기>의 [1가지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3 2019학년도 6월 13번)

< 보 기 >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사이시옷은 아래의 조건 ㉠ ~ ㉤가 모두 만족되어야 표기된다. 단, ‘긋간, 셋방, 숫자, 찻간, 뒷간, 헛수’는 예외이다.

○ 사이시옷 표기에 고려되는 조건

- ㉠ 단어 분류상 ‘합성 명사’일 것.
- ㉡ 결합하는 두 말의 어종이 다음 중 하나일 것.
 - 고유어 + 고유어
 - 고유어 + 한자어
 - 한자어 + 고유어
- ㉢ 결합하는 두 말 중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것.
- ㉣ 두 말이 결합하며 발생하는 음운 현상이 다음 중 하나일 것.
 - 앞말 끝소리에 ‘ㄴ’ 소리가 덧남.
 - 앞말 끝소리와 뒷말 첫소리에 각각 ‘ㄴ’ 소리가 덧남.
 -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

㉠ ~ ㉤ 각각의 쌍은 위 조건 ㉠ ~ ㉣ 중 [1가지 조건]만 차이가 나서 사이시옷 표기 여부가 갈린 예이다.

	사이시옷이 없는 단어	사이시옷이 있는 단어
㉠	도매가격[도매까격]	도맷값[도매깎]
㉡	전세방[전세뻥]	아랫방[아래뻥]
㉢	버섯국[버섯꾹]	조갯국[조개꾹]
㉣	인사말[인사말]	존댓말[존뎨말]
㉤	나무껍질[나무껍질]	나뭇가지[나무까지]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44. <보기>의 ㉠~㉣ 중 ㉠을 적용하여 발음해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수능특강)

< 보 기 >

표준 발음법 제17항에 따르면, 현대 국어의 ㉠구개음화는 ‘ㄷ, ㅌ’으로 끝나는 형태소가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할 때, ‘ㄷ, ㅌ’이 각각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이때 ‘굳히다’처럼 ‘ㄷ’으로 끝나는말 뒤에 ‘이’가 아닌 ‘히’가 결합할 때에도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구개음화는 후행하는 말이 조사, 접미사 같은 형식 형태소일 때만 적용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하며,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도준아, 집에 ㉠같이 가자.” 침묵을 ㉡버티지 못한 내가 몇 번이나 말을 걸어 보았지만 도준이는 조개처럼 굳게 ㉢단힌 입을 열지 않았다. 결국 나는 도준이에게 ㉣끝인사를 듣지 못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국어 영역

45. <보기>의 ㉠~㉤ 중 ㉡을 적용하여 발음해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수능특강)

< 보 기 >

(가) 국어의 자음 체계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입술소리 (순음)	잇몸소리 (치조음)	센입천장소리 (경구개음)	여린입천장소리 (연구개음)	목청소리 (후음)
		파열음	평음 ㄴ	경음 ㄷ		ㄱ
	격음 ㅂ	ㅃ		ㅋ		
	꺾음 ㅍ	ㅑ		ㆁ		
파찰음	평음		ㅈ			
	경음		ㅉ			
	꺾음		ㅊ			
마찰음	평음		ㅅ		ㅎ	
	경음		ㅆ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나)

달는[단는], 밥 먹는다[밤멍는다], 신라[실라]

- ㉠ 서로 인접한 두 자음 중, 선행하는 자음의 조음 위치는 바뀌지 않고 조음 방법만 바뀐다.
- ㉡ 서로 인접한 두 자음 중, 후행하는 자음의 조음 방법은 바뀌지 않고 조음 위치만 바뀐다.
- ㉢ 서로 인접한 두 자음의 선행하는 자음과 후행하는 자음의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바뀐다.
- ㉣ 서로 인접한 두 자음 중, 선행하는 자음의 조음 위치가 후행하는 자음의 조음 위치와 같아진다.
- ㉤ 서로 인접한 두 자음 중, 후행하는 자음의 조음 방법이 선행하는 자음의 조음 방법과 같아진다.